

추도문

나의 송상용 교수 추모

박성래†

10년의 미국 유학에서 내가 귀국한 것은 1977년 2월 말이었다. 1967년 1월 미국에 갔던 나는 꼭 10년하고도 한 달 만에 귀국한 것이다.

귀국 하룻가 이틀 만에 처음 만난 송상용! 그는 아직 “교수”는 아니었다. 당시 송 선생은 취직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던 상황이었을 듯하다. 여하간 그렇게 만난 송 선생은 나와 거의 같은 때에 정식으로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로 취업했다. 구태여 비교하자면 송 교수는 종합대학교의 선생이 되었고, 나는 한국외국어대학이라는 단과대학 선생이 되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 것은 1977년 나의 귀국보다 몇 년 전이었다. 1967년 봄에 미국에 갔던 우리는 1969년 송 교수는 인디애나 대학에서, 나는 캔자스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송 선생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나는 하와이 대학으로 옮겨서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했다. 전상운 교수가 소개하여 송 교수가 미국 하와이 대학에 유학하고 있던 나에게 편지를 했기에 우리의 교류는 시작되었다. 1972년 썸이었을 것이다.

사실은 송 교수와 나는 훨씬 전 우리 둘이 한국에 있을 때도 마주칠 기회가 있었을 듯하다. 1966년 전상운(全相運) 교수의 『한국과학기술사(韓國科學技術史)』 출판기념회가 호수그릴에서 열렸을 때 우리는 그 장소에 있었을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39@naver.com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66년 3월 30일 초판 700부가 발행되었다. 출판 기념회는 책이 나오고 바로 1966년 봄이었을 듯하다. 이 책을 낸 과학세기사(科學世界社)는 1964년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학생이던 남궁호(南宮浩)가 월간 과학잡지 『과학세기』를 내며 시작했지만 겨우 2년 정도로 단명한 잡지였고, 1년 뒤에 시작한 『학생과학』은 뒤에 한국일보사가 인수해 1995년까지 3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발행된 기록을 갖고 있다.

전상운과 박성래는 『과학세기』에 글을 써주며 필자로서 출판사에서 만났지만, 송 선생은 그런 활동은 없을 때였으니 나는 그를 만날 기회가 없었던 셈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 유학 시절에도 우리는 먼 나라 미국에 거의 같은 기간을 유학 가 있었고, 게다가 바로 이웃 주에 유학했던 것을 뒤에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캔자스 대학에 있었고, 송 교수는 인디애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 거리는 500마일(약 800km) 남짓인데 차로 가면 8시간, 운전할 정도 거리란다. 두 대학 사이에는 캔자스에서 동쪽으로 미주리 주만 횡단하면 인디애나가 된다.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우리는 미국 한복판에서 8백 킬로미터 떨어져 2년을 살았다.

귀국과 함께 송상용은 박성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셈이다. 좀 엉뚱한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 귀국 3년 뒤 쫓이던가? 송상용 교수는 등 가방인가? “뤽색(rucksack)”을 메고 서해의 유명한 해수욕장 대천에 나타났다. “외대 별장”이란 이름으로 학교 안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한 여름 동안 대학 안에서는 교직원들 사이에 경쟁이 있을 정도로 거기 별장은 인기가 있었다. 해변 별장의 모래톱 안쪽의 간이 식탁과 의자를 앞에 두고 그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했던지 전혀 기억에 없지만, 내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의 모습이다.

그와는 평생에 여러 차례 여행을 다닐 핑계가 생기기도 했다. 아마 과학 대중화를 앞세운 “과학저술인협회”가 그 수단이 되기도 했고, “한일과학사세미나”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또 부인 김선곤 씨는 나와는 대학 동기동창이기도 하다. 서울대 문리대의 서로 다른 학과(사학과와 물리학과)를 같은 서울대 15기로 다녔으니 말이다.

송 교수는 내가 귀국 후 바로 첫 책을 내는 데 적극 도움을 주기도 했다. 전파과학사에서 내고 있던 “현대과학신서” 101권째로 내 책 『중국과학의 사상(中國科學의 思想)』이 “중국에는 왜 과학이 없었던가?”라는 부제를 달고 1978년 7월 5일 문고판으로 출간된 것이다. 500원짜리 196쪽 분량의 이 책

에는 중국의 철학자 풍우란(馮友蘭)과 호적(胡適), 영국의 니덤(Joseph Needham)과 미국의 레벤슨(Joseph R. Levenson)의 논문과 내 글 두 편이 엮여있다. 이 책은 지금도 절판되지 않은 듯하여 찾아보니 한자로 도배하다 시피 되었던 책이 지금은 순한글판이 되었고 값도 11,700원이란다. 초기의 현대과학신서 편집기획위원은 박택규(朴澤奎, 건국대 문리대, 화학), 이병훈(李炳勳, 전북대 사범대, 생물학), 박승재(朴承載, 서울대 사범대, 물리학), 송상용(宋相庸, 성균관대 교양부, 과학사 과학철학) 등이라 되어 있다.

2005년 2월 26일(토) 내 일기에는 이런 대목도 보인다.

어제는 중요한 행사를 치루고 기분이 아주 좋다. 과학사학회에서 내 정년 기념으로 낸 학회지를 나눠주는 의식을 했는데, 옛 서울대 앞의 중국집 진아춘에서 30명이 참석했다. 황상의 회장의 준비 덕택에 전상운, 송상용 부부, 오진곤 ... 송 교수 부부는 필리핀에서 급히 귀국해 7시 반에 도착했다. 여간 고맙지 않다. 원래는 내일(일요일=오늘) 귀국 예정이었다고 한다. 공항에서 짐을 모두 가지고 나타났다 ...

말로는 오늘 나의 임무는 송 선생을 과학사학회의 한 사람으로서 추모하는 일인데, 막상 나는 그와 과학사를 놓고 대화하거나 심각해진 일은 전혀 없다. 참 이상도 하지! 나는 요즘도 가끔 컴퓨터를 열고 내 이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송 교수를 떠올린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와 나는 이메일로 서로 교통한 것이 거의 없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송 선생과 내가 전화로 서로 소통한 것도 극히 드물다. 그래도 내가 그를 한국 “과학사 운동의 기수”라 이름 붙였던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¹

¹ 박성래, 『중국 과학의 사상』 (전파과학사, 1978), 6.